

바다 없는 화순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된 까닭은?

“안동 고등어”처럼 ‘화순 수산물’ 성공 자신” 설득

능주면 남정리 양돈단지 수산물 연구·가공시설로 국비 70억 등 140억 투입 2018년말 준공 예정

해안을 갖지 못한 6개 전남 시·군 중 하나인 화순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70억 원을 지원 받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일원 3만1596㎡에 국비 70억원, 군비 70억원 등 140억원을 들

여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감정평가, 토지보상, 산업단지 지정 및 인허가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부지는 과거 양돈단지였다. 악취로 인해 주민민원의 단골 대상이었던 부지가 군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거점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내륙에 자리한 화순군이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계획을 해수부에 처음 설명할 때만 해도 해수부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해안도 없

는 지자체의 요청에 어찌구무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안동 고등어 사례를 들어 꾸준히 설득한 결과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며 “전남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화순에서 가공해 전국으로 유통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화순군은 해수부를 상대로 내륙에 자리한 안동에서 고등어를 특산품으로 정착시킨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화순이 대도시면서 동시에 수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광주와 가까운 교통 및 지리적 장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젓갈류, 발효식품, 해산, 내수면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

수산식품을 개발·가공·유통·판매하는 6차 산업 지구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높아 어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뽕장어를 양식대상 어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중이다. 이날 현장 방문차 화순을 찾은 이낙연 전남지사에 대해 사업비 중 군 부담액 절반 정도의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부터 능주면 정남리 일원에 국비 35억원, 군비 35억원 등 70억원을 들여 메기 등 토산어종 2~3종을 양식하는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등 수산물을 통한 지역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구종군 화순군수가 바다도 없는 화순에 수산식품거점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긴가민가했었다”며 “현장을 둘러본 뒤 전남도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민선 6기 이후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산업,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 등을 통한 첨단의료산업 메카 육성, 화순 전통시장 활성화, 화순 공립수목원 조성, 주자묘 기반 정비,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대 134만원

내년 4인 생계급여 5.2% ↑

내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인가족 기준으로 5.2% 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됐다. 4인가족 소득이 134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22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는 다. 추가급여는 192만원, 의료급여는 178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7천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전남, 지역발전지원금 1조5443억 ‘2위’

광주 1424억 ‘부산의 절반’

지난해 전남이 경북에 이어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4번째였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장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

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최대 최소 지원액 격차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조59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조5443억원을 배정받은 전남이었으며 경남(1조1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4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3700억원으로 예산 배분액이 가장 적었고 충북(6106억원), 강원(8192억원)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2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가장 많았다. 인천이 197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고 대구(1676억원), 광주(1424억원) 순이었다. 세종은 가장 적은 68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경전선 광양~진주 복선화 완료...31분 단축

경전선 철도 경남 진주~전남 광양 51.5km 구간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돼 14일 개통된다. 1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2010년 12월 삼랑진~마산, 2012년 12월 마산~진주 구간에 이어 진주~광양 구간까지 개통하게 돼 삼랑진에서 순천에 이르는 경전선 158km 전 구간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복선화 사업으로 경전선은 진주, 사천, 하동, 광양 등 4개 시군을 통과하

고 섬진강을 횡단하며 영호남을 연결하게 된다. 노선이 개통되면 73분이 걸리던 진주~광양 구간을 31분 단축한 4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역 간 교류와 균형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랑진~순천 남해안권 철도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선로 용량이 하루 36회에서 157회로 늘고 철도수송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공정여론 확산보다 혼란 ‘불 끄기’ 먼저

사드 성주 배치 조기 발표

“단수 후보지 좁혀진 상태에서 軍 당국 혼란 방지” 비판에 설명회 못하고 발표 서둘러

한미 군 당국이 예상보다 빠른 13일 미국의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혼란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경북 성주가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전하자 더 발표를 미뤘다가는 불필요한 의혹만 더해질 뿐이라고 여겨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발표하면서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수 주 내에 배치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이르면 내주 후반에 배치지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전 배치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국내 취재진의 미군기지 사드 포대 취재를 주선해 사드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단수 후보로 배치지역이 좁혀진 상황에서도 배치지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군 당국이 혼란을 방지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경기 평택과 오산, 경북 칠곡,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남 양산 등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부상했고, 거론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를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군민 결기대회’에 참가한 성주 군민들이 ‘사드배치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되는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미 실무조사단의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지만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다. 이미 내린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배치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만 얽매는 행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배치 지역을 둘러싼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최대한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장 떠나고 싶다” 성주 주민 격분

경북 성주 주민은 격분했다. 성주 거리 곳곳에는 사드 배치를 결사 저지한다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범군민결기대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5000여 명이 몰려 정부 결정을 규탄했다. 노인들까지 ‘사드 결사반대’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항군 성주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밀실 행정으로 성주군의 희생을 바라는 현실에 군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은 “작은 공장 하나 들어서도 절차가 있는데 사드를 배치하면서 주민과 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이승민(35)씨는 “일인반군 없다 가 갑자기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인구가 적다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위협하지 않다고 하는데 확신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 떠나고 싶다”고 걱정했다. /연합뉴스

사람찾음

성명: 박영욱(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집바와 열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리가 18억원
- 화순군 남면 사평리 대지218평 전망좋은 건축가능 부지가치 ▶ 감평가 2천6백만원 최저가 2천6백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원룸 건물133평 토지74평 코너위치 18가구 위치좋은 ▶ 감평가 4억6천 최저가 3억7천만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평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평가에56%)
- 북구 중흥동 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222평 위치.건물상대 최상 ▶ 감평가 12억원 최저가 12억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평가 1억2백만원 최저가 5천3백만원
- 북구 오치동 3층다가구주택 건물105평 토지58평 건물양호 서산초등학교인접 ▶ 감평가 3억5백 최저가 2억2천만원
- 전남 보성군 인로잇을 편백및 삼나무식재된 부지가치우수 ▶ 감평가 5천4백만원 최저가 3천8백만원
- 북구 용봉동 4층중 3층복합상가 건물 30평 토지 18평 사무실추천 ▶ 감평가 1억2천5백만원 최저가 3천7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공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광주시내(062)	전남(061) · 전북(063)
<p>북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광 264-2012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중흥 654-2985 남광 222-9440 동명부 222-9054 중부 225-6001 중부 222-1896 중부 222-8171 남부 652-0175 남부 651-1833 봉선 675-5530 하 675-6605 진월 671-7276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봉정 603-0311 화정 369-0583 월곡 941-9174 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p>동부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흥군 842-2121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광양시 792-8111 보성군 852-9646 순천시 746-8111 여수시 692-0997 <p>중부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주시 335-5501 강진군 434-6830 담양군 383-8116 영암군 471-1717 장성군 394-0400 장흥군 863-8822 화순군 374-4423 <p>서부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영광군 351-1004 완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함평군 324-8111 해남군 537-6767 <p>전북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467-2500 정읍시 531-5544 순창군 652-1920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